아베 총리의 악수, 문 대통령의 악수

(시편 1:1~6)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베 총리의 악수, 문 대통령의 악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아베 총리의 악수, 문 대통령의 악수'

며칠 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도 참석하셨다가 돌아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 외교무대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정상회의 기간에 각국 정상들의 양자회담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려 9번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 정상이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UN대표와 EU, 세계은행의 수장들과도 회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문 대통령이 자신의 무력함을 실감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쾨르버 연설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정착과 북핵문제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해야 할 바를 놓치지 않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에게서 일어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철학과 그 철학에 입각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신과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위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

응과 효과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어차피 UN이나 미국도 북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에 무력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 문제가 연일 뉴스로 보도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습관이 화젯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악수 방식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악수는 상호존중의 마음이 전제되는 가운데 만남의 반가움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갓 대통령으로 선출된 프랑스의 젊은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에는 맞잡은 손이 피가 안 통해서 하얗게 될 정도로 악력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했고,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경우에는 다른 한 팔로 트럼프의 팔을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들 모임에서 신경 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의 악수 습관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그 대척점에 서있는 한 정상의 악수 습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아베 총리의 악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것에 반해서 아베 총리의 악수는 지나지게 상대방에게 종속적인 악수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에 무려 19초 동안 손이 잡혀있었습니다. 손이 풀려날 때에 아베 총리의 표정이 마치 피겨스케이트 선수인 아사다 마오 선수가 트리플 악셀 점프를 준비할 때에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일그러진 표정과 비슷했었다고 합니다. 진땀을 흘리고 거북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학을 떼는 표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먼저 와 있던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굳어져 있는 것을 본 아베 총리는 엷은 미소를 띠며 들어오다가 곧 굳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악수를 하자마자 아베총리를 자기 쪽으로 확 잡아 당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면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베 총리의 얼굴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밝은 얼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학을 떼는 표정이었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굳어있고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활짝 웃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종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반면에 문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환하게 웃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을 만나서 웃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웃는 상태에서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카메라가 터질 때마다 웃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웃으며 참여하고 웃는 도중에 정상들이 바뀌며 악수를 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나 문 대통령의 인격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없

이 화면에 비친 모습만을 순전히 비유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아베 총리의 악수하는 모습은 상대방에 종속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 대통령이 상대방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환하게 웃는 상태에서 정상들을 만나는 것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아베총리와 문 대통령과 악수할 때에 태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시편 전체의 말씀은 1편에서 설정된 삼각관계의 무대 위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 건강 재물 명예 승진 성공 등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손에 쥘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가치들과 나의 삼각관계 안에서 인간의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든 세상의 가치들을 향하든 흐름을 형성하게 되고, 그 흐름이 닿는 곳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쓸 경우에 흐름이 형성되어서 그 재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삼각관계 안에서 갈등과 연민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흐름을 형성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로 형성된 마음의 흐름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늘의 뜻을 열매 맺는 삶을 노래하며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 다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태였다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변화하는 과정이 시편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람에 나는 겨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될 수 있고, 또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는지를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주는 것은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흐름 자체가 뿌리 역할을 함으로서 마음을 보내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빨아들이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은 대상에 있습니다. 어느 대상으로 마음의 흐름을 보내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 앞에서 한 번도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웃지 않았던 부인이 다른 남자 앞에서 활짝 웃음을 짓게 된다면 커다란 배반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웃는 대신에 세상으로 웃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돈에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경하게 다가온다

면 아베 총리처럼 학을 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상태가 시진핑 주석 같을 때에는 아베의 손을 확 잡아당겨서 끌려 다녀야 한다면 아베 총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처럼 재정 상태의 마음은 괴롭고 걱정스럽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학을 떼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아베 총리라는 재정상태가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는 환하게 웃는 상태로 다가오면서 덩달아 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아무도 문 대통령처럼 환하게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인상은 왜 그렇게 굳어져있던 것일까요? 젊은 마크롱 대통령도 문 대통령처럼 웃지는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웃는 얼굴을 보다보면 따라서 웃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라다니는 모습이야 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입니다.

겨는 벼 보리 밀 등에서 알곡들이 빠져나가고 난 뒤의 쓸모없는 쭉정이입니다. 우리의 삶의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녀나 재산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으로 마음을 보내어 달라붙으면 그 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자녀에 대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냈다면, 오히려 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내는 수도꼭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지 않고 자녀에게로 보낸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겨와 같은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자녀의 문제 상태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경해진다면 학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로 마음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안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쓰레기가 됩니다. 재물에게 마음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쏟아내는 수도꼭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지 않고 재물에 대해 마음을 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재물에 대해 이런저런 판단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판단과 행동은 다 겨와 같은 쓰레기가 됩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의 판단이나 생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돈을 벌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야만 합니다.

어떤 정상을 만나든지 이미 웃고 있던 문 대통령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과 삼각관계를 이루든지 그 삼각관계에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면, 이 세상 것들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이미 웃고 있는 상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웃는 상태에서 돈이라는 정상과 악수하고, 배우자라는 정상과 악수하고, 사업이라는 정상과도 악수하며 그 외의 모든 문제나 모든 활동이라는 정상들과도 악수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미 웃는 상태에서 G20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웃지 않고 웃고 있다가도 이 세상 것들에 먼저 마음을 보내다보니

그 상황이 트럼프 같으면 학을 떼게 되고 시진핑 같으면 굳어집니다. 푸틴 같으면 무표정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게 호감적인 상태를 찾기는 G20의 1/20의 확률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야 웃을 수 있었던 아베 총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은 확률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삼각관계에서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드림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악수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수도꼭지가 됩니다. 딱 한 가지 잘못은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로 만나는 것들에 대해 먼저 마음을 보냄입니다. 그것들로 대해서 신경 쓰는 내 마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버려서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 쪽으로 마음을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오셨고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사건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 세상으로 흐르는 마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 마음의 흐름이 형성될 것이고, 하늘이라는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심긴 자들로서 시절을 좇아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항상 웃고 있는 중에 각국의 정상들을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처럼,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충만한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이 땅에 마음을 먼저 두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삶이 중단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이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문 대통령의 악수 같은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베 총리의 악수 같은 삶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